

영화를 통해 본 현대 일본 여성의 비혼화(非婚化) 현상

-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를 중심으로 -

이 윤 주*

(e-mail : yoonju112@naver.com)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3. 영화를 통해 본 여성을 비혼으로 유인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
| 2. 자발적·비자발적 비혼 시대 | 3.1. 가족 개호의 최적임자 |
| 2.1. '생애미혼율'의 증가 | 3.2. 결혼과 비혼의 딜레마 |
| 2.2. 비혼의 증가 요인 | 4. 나오며 |

キーワード：結婚(Marriage), 非婚(Non-marriage), 生涯未婚率(Ratio of lifetime no marriage), 女性(Women), 家族(Family), 介護(Care), 出産(Birth), 映畫(Film)

1. 들어가며

비혼¹⁾, 만혼, 저출산 등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언론 기사를 통해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 일본에서도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나 일본사회나

* 전북대학교 일본학과 강사, 일본 사회·문화 전공.

1) 미혼이라는 개념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혼이라는 어휘가 '원래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의 의미를 일컫는 경향이 크다고 하여 '혼인상태가 아님'이라는 보다 주체적인 의미로 여성 학계에서는 비혼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혼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되 참고문헌이나 자료에서 다루는 고유명사는 그대로 원어를 사용해 미혼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심각성을 낱말이 쏟아내고 있을 뿐 실질적 대안을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결혼, 비혼, 출산, 돌봄의 문제는 여전히 가족의 문제, 즉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구감소의 원인을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의 저하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는 일은 그 책임 소재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총무성(總務省) 통계국의 「국세조사(國勢調査)」(2015)에 따르면 도쿄도, 오키나와현, 아이치현 등 8개 지역에서만 인구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오카야마현 등 39곳 도부현(道府縣) 지역에서는 2010년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1,719 시정촌(市町村) 중 82.5%에 해당하는 1,419 시정촌에서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 인구 추이도 살펴보면 15세 미만 인구는 총인구의 12.6%, 15세~64세 인구는 60.7%, 65세 이상 인구는 26.6%를 차지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15세 미만 인구는 1980년 이후 감소 추이가 이어져 조사개시(1920년) 이래 가장 최저 수치이며, 이와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최저 수준이며,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세대를 세대 인원별로 분류한 자료에서는 1인 세대가 3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세대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3인 이상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인 이상 세대의 인구는 10%나 감소했다.²⁾

이처럼 현대 일본의 인구감소와 단독세대(單獨世帯)의 증가는 결혼이 위험 부담이라는 인식과 함께 비혼 시대가 도래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법적 혼인 관계로 이루어진 부부의 출산만을 정상적인 출산으로 인정하는 일본의 보수적 가족관은 인구감소를 한 층 더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2010년 일본 여성 8%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남성 또한 10.4%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수사적인 자기방어로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의 해석을 빌어 “젊은 남녀가 왜 결혼하지 않는가. 그건 남녀 모두 결혼하면 손해 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손해 보는 내용은 남녀의 입장이 각각 다를 것을 제시하며 “결혼하면 여성은 시간을 잃고, 남성은 돈을 잃는다. 여성이 시간을 잃는다고 느끼는 건 가사와 육아는 전부 여성이

2) 総務省(2015), 「國勢調査」, pp.8-23.

책임져야 한다는 결혼관 때문이고, 남성이 돈을 잃는다고 느끼는 건 남성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결혼관 때문이다”. 야마다 마사히로가 주장한 “남성 생계 부양자형 모델”과 같은 보수적인 결혼관을 유지하는 남녀일수록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³⁾

본고는 영화라는 대중문화가 사회적 현실을 잘 반영하는 장르인 만큼 영화를 통해 현대 일본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비혼화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구체화 시켜보고자 한다. 영화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사회문화적 가치 및 요구들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중매체이다. 특히 가정을 일상소재로 한 홈드라마라는 형식은 현시대의 가치관과 생활상, 가족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영화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대중적 가치관의 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며, 대중에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다.

영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원제: すーちゃん まいちゃん さわ子さん)는 마사다 미리(益田ミリ)의 4컷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미노리카와 오사무(御法川修) 감독에 의해 2012년에 제작되어 2013년 공개되었다. 마사다 미리는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에세이스트로 활동하는 작가로 그의 작품 일명 ‘수짱시리즈’는 3~40대 여성의 결혼과 비혼, 출산, 일과 사랑 등 삶에 대한 의문을 담백하고 진솔하게 담아내며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본고는 영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를 통해 일본영화가 그려내고 있는 현대 일본의 비혼여성에 대한 삶을 들여다보고 여성을 비혼으로 유인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함께 현대 일본사회의 가족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자발적 · 비자발적 비혼 시대

2.1. ‘생애미혼율’⁴⁾의 증가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 팀은 무연

3) 上野千鶴子·水無田氣流 著(2015), 『非婚ですが、それが何か!? 結婚リスク時代を生きる』, ビジネス社, pp.28-34.

4) 생애미혼율이란, 50세 시점으로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일컫는다.

사회 보도⁵⁾를 시작하면서 이를 “독신화”라고 명명했다. 일본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청년층이 홈리스가 되는 실태 등을 보도했다. 산업구조의 변화, 가치관, 가족구조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거대한 사회적 흐름은 단독세대의 증가를 앞당기고 있다. 단독세대의 증가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히는 ‘생애미혼율’의 급증 배경에 무연사회 프로젝트 팀은 전문가의 의견을 취재해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편의점의 보급 등 혼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은 인프라의 정비, 두 번째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인 규범의 약화, 네 번째 여성의 경제력이 향상되어 결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의 증가 등이다. ‘생애미혼율’ 증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실업자가 되는 경우 빈곤화될 소지의 우려,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의 문제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일본의 사회시스템이 우선은 가족이, 그다음 기업이, 마지막으로 공적인 안전망이 가동되어 온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가족 내에서 서로 보완해주는 ‘가족 안전망’과 함께 기업이 고용을 유지해 안정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 안전망’ 그리고 사회보장이라는 ‘공적인 안전망’이 있었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족 안전망은 점차 약해지고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로 기업 안전망도 허술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전체가 공적인 안전망만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중장년층은 공적인 안전망을 기대하기 힘들다. 4~50대 미혼의 경우 젊은이도 고령자도 아닌 상황에서 고립을 막기 위한 정책 대상이 되기는 현재 어렵기 때문이다.⁶⁾

그러나 ‘생애미혼율’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이혼율 또한 단독세대의 증가에 일조하고 있으며, 특히 중년 이후의 이혼은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양산하는 기제가 된다.

5) 2010년 1월 초 NHK의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워치 9>에서 3회에 걸쳐 시리즈로 ‘무연사회 일본’을 제작, 방송했다. 이어 아침 방송 시리즈 ‘인연을 만들자’, 주말 저녁 특집 방송인 NHK 스페셜 ‘무연사회: 무연사 3만 2,000명의 충격(無縁社会~“無縁死” 3万2千人の衝撃~)’, ‘사라진 고령자 무연사회의 그늘’ 등 무연사회를 주제로 일련의 기획 프로그램을 내보내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6)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팀 지음, 김범수 옮김(2012), 『무연사회』, 용오름, pp.136-141.

<표-1> 혼인건수 및 이혼건수 추이(1980년~2015)

(千件)

항목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혼인건수	775	736	722	792	798	714	700	635
이혼건수	142	167	158	199	264	262	251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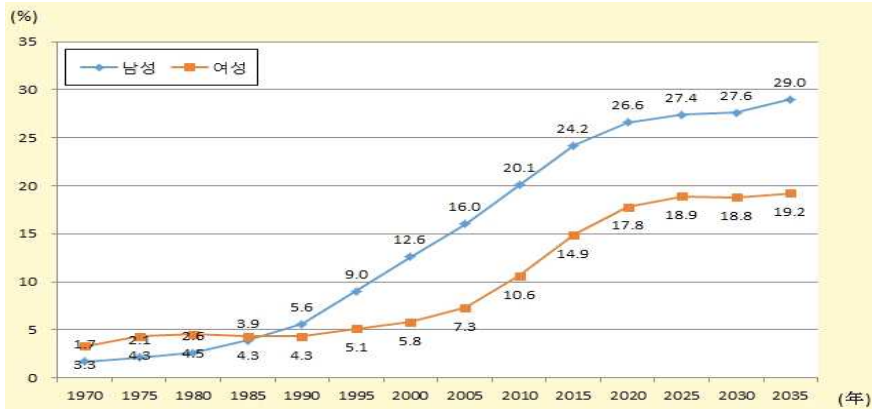
자료출처 : 후생노동성(2015), 「인구동태통계」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은 1980년 이후부터 혼인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이혼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에 대한 관념이 생애를 통해 꼭 ‘해야 하는’ 통과의례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남녀공동참획사회에 관한 여론조사」(내각부, 2009) 결과 결혼관에 대한 의식이라는 질문에 결혼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결혼하지 않든 어느 쪽이나 상관없다는 응답이 70.0% 이상을 차지했다. 이혼에 관한 질문에도 결혼한 후 상대방에게 만족할 수 없을 때는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0.1%로 반대라고 답한 44.8%보다 많았다. 예전과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해 더 이상 이혼을 흠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사라졌다.

이처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릴 만큼 오랜 시간 이어진 일본의 경제불황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레 비혼의 증가로 이어졌다.

일본 여성의 미혼율 추이를 들여다보면 1980년 9.1%였던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2010년에는 34.5%로 3배 이상 상승했다. 1985년 6.6%였던 35~3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90년 7.5%, 1995년 10.1%, 2005년 18.7%로 상승하고 2010년에는 23.1%로 20%를 넘어섰다. 여성의 생애미혼율은 1980년 4.45%에서 2010년 10.61%로 6% 이상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생애미혼율의 증가는 비단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다음의 도표가 보여주듯 오히려 남성의 미혼 증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비혼화, 만혼화의 흐름이 변하지 않는다면 생애미혼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추측된다.

<표-2> 생애미혼율의 추이(장래 추계 포함)



자료출처: 후생노동성(2015), 「후생노동백서」에 의해 정리.

(注) 2010년까지 「인구통계자료집(2015년)」, 2015년 이후는 「일본의 세대수의 장래 추계」에 의해 작성, 45~49세의 미혼율과 50~54세의 미혼율의 평균이다.

2.2. 비혼의 증가 요인

비혼 인구의 증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과 비혼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독신의 자유로운 생활을 잃고 싶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⁷⁾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생애에 걸쳐 대부분이 결혼하는 ‘보편혼’(universe marriage)사회였다. 독신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세대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이라는 관습에 순응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보편혼에 속해 있는 세대의 연령층은 빠르게 상승 중이다. 인생의례에서 결혼이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흐름은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자발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가 응답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라는 답변에 있다.

1980년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급격한 비혼율 증가는 젊은 세대를 둘러싼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비정규고용 증가와 더불어 임금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대기업과 정부가 진행한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 이념은 다양한 근무방식이라는 이름 아래 인건

7) 内閣府(2014), 「平成26年版 小児化社会対策白書」 p.17.

비 압박으로 이어지며 남녀의 비정규고용화·저임금화가 추진되고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파견사원, 계약사원, 촉탁 등의 비정규고용이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1980년대 후반부터 비정규고용의 형태는 201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정규고용 노동자 비율은 1985년 16.4%에서 2010년 34.4%까지 상승했다. 이 비율은 남녀 모든 계층에서 상승했지만, 특히 젊은 세대 계층의 상승 폭이 컸다. 농림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서 15~24세의 비율이 1985년 14.9%에서 2010년 46.5%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5~34세의 비율도 9.8%에서 24.5%로 각각 상승했다.⁸⁾

1990년대 후반에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하기 힘든 이른바 ‘취업빙하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 후에도 신규 졸업자 채용 인원수의 삭감은 이제껏 유지해온 일본형 경영이나 일본형 복지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타격을 주게 된다. 특히 출생자 수가 많은 ‘제2 베이비 붐 세대’⁹⁾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유입되는 시기와 겹치면서 이 시기를 중심으로 수많은 니트(NEET), 프리터(フリーター), 청년무업(無業)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속에 약자로서의 청년세대 존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노력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있는 사회’로서의 일본사회, 특히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당연시되었던 이 가치관에 대해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유기고가인 아카기 도모히로(赤木智宏)는 『청년을 방치하는 나라- 나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은 무엇인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를 때리고 싶다』 등을 통해 “희망은 전쟁”이라고 표현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카기 도모히로의 발언은 현재 일본사회의 심화된 양극화가 ‘불공평’과 격차를 양산해 내는 사회 환경을 리셋(reset)하고 싶다는 표현을 과장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비정규고용 등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청년세대로부터의 이의제기는 사회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가 아마미야 가린(雨宮処凛)은 자신의 저서 『Precariat-디지털 일용직 세대의 불안한 삶』에서 불안정한 고용·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파견직·실업자·노숙자들을 가리켜 ‘프레카리아트’라고 불렀다.¹⁰⁾

8) 厚生労働省(2013), 「労働経済の分析」, p.183.

9) 1971~1974년 사이 고도경제성장기에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말로 사용.

10) 工藤 啓·西田亮介(2014), 『無業社会: 働くことができない若者ものたちの未来』, 朝日新聞出版,

이와 같은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규고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정규고용의 증가는 곧 저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계층의 증가를 나타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양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일본의 중산층 붕괴를 빠르게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세대의 빈곤이나 불안정한 근로 방식은 결혼을 생각할 여유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기대는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현시대는 법적 혼인 관계를 통해 결성된 가족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해야 할 때다. 가족은 성별, 계급,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소득과 학력이 높은 남녀만이 문제없이 결혼까지 이르며 이들은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살 확률이 높다. 하지만 소득과 학력이 낮은 남녀 사이에서 결혼은 점점 희박해 지고 있으며 이들은 결혼에 골인하더라도 이혼으로 끝맺을 확률이 높다. “결혼의 탈제도화”를 개탄할 때 사회학자들은 두 가지 작용에 대해 언급한다. 첫째는 남성이 정치·경제·사회를 지배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여성은 불리한 조건에서 가족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둘째는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은 결혼할 남자를 만날 기회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이상”이었던 결혼에서 더 이상 이득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각각의 ‘결혼 시장’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자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기대를 품게 되었다. 남녀 중 누구의 재력에 투자할지에 대한 결정도 달라졌으며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필요로 하는 신뢰의 수준 또한 바뀌었다. 변화의 흐름은 가족법의 변화와 상호 작용하며 사회에 새로운 가족 정의 방식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러한 방식은 결혼의 의미를 완전히 변형시키고 사람들은 계급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¹¹⁾

이렇듯 비혼을 지향하는 인구의 증가는 복합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비혼은 단순히 개인의 이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비혼인 남녀는 자발적으로 비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pp.142-148.

11) 준 카르본·나오미 칸 지음, 김하현 옮김(2016), 『결혼시장 : 계급, 젠더, 불평등 그리고 결혼의 사회학』, 시대의 창, pp.166-169.

비자발적으로 비혼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며 양산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3. 영화를 통해 본 여성을 비혼으로 유인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3.1. 가족 개호¹²⁾의 최적임자

영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는 ‘수짱 시리즈’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원제: すーちゃん),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원제: 結婚しなくていいですか。すーちゃんの明日), 『아무래도 싫은 사람-수짱의 결심』(どうしても嫌いな人-すーちゃんの決心), 『수짱의 사랑』(すーちゃんの恋)을 엮은 작품이다. 영화는 과거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3명의 여성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계속 연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 현대 일본사회에서 비혼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겪고 있는 삶의 고민과 현실에 대해 담담히 그려낸다.

지은숙(2017)은 비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특정 분야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는데 “정책적으로는 여성의 비혼화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초래하는 사회문제라는 측면에만 부각되어 왔으며, 미디어에서는 이들 비혼여성을 가족부양이나 돌봄을 면제받은 채 자기실현의 일 혹은 소비에만 몰두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즉 기존의 담론은 비혼여성의 생애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한 관심은 소홀한 채 비혼여성을 젠더질서의 밖, 가족의 대척점에 위치시키는 레토릭을 통해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질서를 재생산해온 것이다”¹³⁾라고 언급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는 기존 미디어가 양산하는 비혼여성의 이미지를 전복해 현실적인 담론들을 보여준다. 영화 속 주인공 수짱, 마이짱, 사와코상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으로 영화는 이들의 삶을 투영해 일본사회 구

12) 개호(介護)는 간병과 수발을 포함해 돌보는 일을 가리키는 일본식 용어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상황성을 나타내기 위해 개호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13) 지은숙(2017), 「비혼여성의 딸노릇과 비혼됨(singlehood)의 변화: 일본의 부모를 돌보는 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0-2』, 한국문화인류학회, p.190.

조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안들을 끌어낸다. 우선 개호에 대한 문제이다. 사와코상은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재택근무를 하며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치매에 걸린 외할머니를 돌보며 살아간다. 어머니와 사와코상의 생활은 외할머니의 개호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밀린 일로 종종 밤을 새기도 한다. 하지만 사와코상은 지금의 생활을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만약 결혼하면 엄마 혼자 할머니 병수발 들겠지?”라며 독백하는 장면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반려묘 미짱을 바라보며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부럽네”라며 말하는 그녀의 내레이션은 사와코상의 일상을 가늠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사와코상은 자발적으로 비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비혼인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노부모에 대한 개호는 가족이 담당하는 것으로 당연시 여겼다. 그러나 개호를 담당했던 자식들의 살인, 자살 등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개호에 대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개호의 사회화’가 유행어처럼 번지며 2000년 4월 1일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8년 7월 한국에서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조격이라 불린다. 현재 일본에서는 개호보험 외에도 단독세대의 일과 개호 생활 병행을 돕기 위한 ‘육아휴업·개호휴업 등 육아 및 가족 개호 중인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다. 2010년 발족한 ‘케어러스 재팬 연맹’은 ‘개호자 지원법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모임’을 설립해 개호 중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에서 ‘개호의 사회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학자 오치아이 에미코(落合恵美子)는 가족에 의한 수발을 전제로 구성된 개호보험제도가 오히려 가족의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재가족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 혼자서 노부모를 수발하는 ‘독신개호(single carer)’의 증가로 개호의 사회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¹⁴⁾

2016년 개호보험 개정에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재택의료와 재택개호를 지향해 고령자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재택에서 케어를 받게 하는 정책의 방향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재택중심, 자립중시라는 지향점

14) ‘개호의 사회화’ 일본이 남긴 교훈, 시사 IN 2016년 11월 24일 기사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553> (검색일: 2018년 7월 15일).

은 개호보험제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족의 돌봄 없이는 운용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24시간체제 방문개호서비스’ 등으로 언제라도 케어가 필요한 순간에 개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야간서비스는 적자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는 긴급벨이 있다고 해도 불안함을 느끼거나 몸까지 불편한 경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¹⁵⁾

고령화 사회에서 개호에 대한 문제는 ‘개호살인’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일본 경찰청 범죄 통계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개호로 인한 심신 피로에 의해 발생한 살인 사건은 356건, 상해치사는 21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개호에 대한 책임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후생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2016) 자료에 따르면 개호가 필요한 요개호자(要介護者)를 주로 개호하는 담당자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58.7%로 가장 많고, 이어 사업자가 13.0%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 중 가족을 개호하는 주된 담당자는 배우자가 25.2%, 자녀 21.8%, 자녀의 배우자가 9.7%로 각각 조사되었다. 또한, 개호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34.0%, 여성 66.0%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호 시간에서도 ‘대부분 중일’이라는 수치가 가장 높았으며 남성 개호자가 3할, 여성 개호자가 7할을 담당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호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8.9%로 ‘없다’고 대답한 26.8%를 크게 상회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가족의 질병과 개호가 남녀 각 73.6%, 7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은 가족 개호 구성에 큰 변화를 초래했는데 오랜 시간 사회적 관습과 가치관으로 부모 개호의 역할을 강요받아온 며느리 개호자는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0년에 31.0%에서 2013년에는 17.8%까지 하락했다. 며느리 개호자의 급격한 감소 배경은 결혼한 자녀와 부모의 동거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생애과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80년대까지 남성생계부양자와 전업주부로 이루어진 세대가 주를 이루었다면 2014년에는 역전되어 맞벌이 세대는 증가하고, 남성생계부양

15) 박승현(2017), 「‘가족개호’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의 사회화’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자립과 자조’의 딜레마」,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131.

자와 전업주부로 이루어진 세대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주개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며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자녀 수가 적은 세대가 부모 개호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친정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기혼여성이 증가한 것도 며느리 개호자의 감소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며느리 개호자가 감소하는 시대에 딸은 가장 이상적인 부모 개호자로 지목된다.¹⁶⁾

영화도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사와코상의 오빠 가족이 사와코상과 어머니를 방문하는 장면에서다.

사와코상의 친구(음식배달원) : 꽤나 떠들썩하네.

사와코상 : 오빠네 식구들이 와서.

사와코상의 친구 : 오빠는 따로 살아?

사와코상 : 응. 처가택 근처에.

(중략)

사와코상의 오빠 : (자신의 아내에게) 슬슬 갈까?

며느리 : (자신의 아들에게) 해야토, 갈 준비해.

사와코상의 어머니 : (며느리가 음식을 치우려 하자) 내가 할게.

사와코상의 오빠 : 엄마가 치울 거야.

며느리 : 죄송해요.

사와코상 : 벌써 가는 거야?

사와코상의 오빠 : 내일 바빠서.

사와코상 : 해야토 증조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사와코상의 오빠 : 됐어, 누군지도 모를 텐데 굳이 깨울 필요가 있나.

(중략) 사와코상 오빠의 가족이 돌아간 후

사와코상 : 왜 저래?

사와코상의 어머니 : 뭐가?

사와코상 : 굳이 깨울 필요 없다니? 자기 귀찮아서 그런 거지!

사와코상의 어머니 : 그럴지도.

사와코상 : 할머니 바로 옆방에 계신 데 인사도 안 하고 가?

사와코상의 어머니 : 이젠 따로 사니까 그럴 테지.

16) 지은숙(2017), 앞의 논문, pp.194-196.

결혼한 오빠의 가족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외할머니의 개호에서 제외된다. 영화는 외할머니의 개호는 사와코상의 어머니가, 사와코상의 어머니는 머지않아 함께 사는 사와코상이 개호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자녀세대 내에서 딸이 비혼인 경우 부모 개호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전후에 양산된 전쟁독신자 중에도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 여성들이 많았다. 2000년대 이후 결혼규범의 약화와 저출산 문제는 개호자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남편과 아이가 없는 비혼인 딸이 부모 개호자로서 최적임자로 지목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¹⁷⁾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의 이중침체 속에서 비혼의 증가는 법률적 결혼 외 출산하는 행위가 금지인 일본사회에서 자녀 수 감소로 이어졌고 출생률은 하락했다. 저출산을 앞세워 비혼을 사회문제화 시킨 것은 정부였다. 2007년 후생노동성 장관이었던 야나기사오 하쿠오는 “15세에서 50세 여성의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낳는 기계, 즉 장치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발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언은 여론의 반발을 크게 샀지만, 장관의 사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결혼 못 하는 남자, 결혼 안 하는 여자”라는 젠더화된 담론이 강화되면서 비혼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한 여성들과 결혼할 수 없게 된 남성들이라는 이미지를 양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은 비혼에 대해 “비생산적”이라는 낙인을 새긴다. 그러므로 생산적인 정상가족, 이른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에 권위를 부여하면서 비혼자를 “주변화(marginalization)”하며 생산적인 부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식은 가족 내 개호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비혼자가 부모 개호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담론을 만들어 재생산에 참여하는 정상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한다.¹⁸⁾

앞으로 비혼자에 의한 부모개호의 형태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특히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두 배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혼여성의 개호가 일본의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더욱 강화될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3.2. 결혼과 비혼의 딜레마

17) 지은숙(2017), 앞의 논문, pp.196-197.

18) 지은숙(2016), 「비혼(非婚)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가족관계와 젠더질서: 사회집단으로서 비혼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9-3』, 한국문화인류학회, pp.291-293.

수짱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직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신메뉴를 개발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연애에서는 서툴지만 일에서만큼은 인정받아 점장에까지 오르는 여성이다. 그러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며 지금의 삶에 늘 의문을 갖는다. 34세의 마이짱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해결사 역할을 할 만큼 능력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는 주변인들로 인해 상처받는다.

일본의 비혼화·만혼화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작 젊은 세대의 결혼에 관한 의식은 꽤 긍정적이다. 미혼자를 대상으로 일생을 통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언젠가 결혼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18~34세 미혼자 중 남성이 86.3%, 여성이 89.4%로 미혼인 젊은 세대 대다수가 장래 결혼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었다.¹⁹⁾ 그러나 그 바람과 달리 결혼까지 이르는 수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오랜 경제불황이 가져온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양극화 심화가 그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여성의 비혼화 이유는 남성과는 차이가 있다. 바로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결혼구조의 보수화 경향이다. 대표적으로 결혼하면 당연시되는 여성의 출산 담론은 여성의 몸에 대한 배려 없이 모든 여성을 출산할 수 있는 몸으로 간주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출산할 의지가 있는 것도 출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환경문제를 비롯해 원인 모를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도 존재하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상황에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도 존재한다. 게다가 가치관의 변화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자임을 분명히 하며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 에도 여성에게 ‘결혼=출산’이라는 등식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여성을 압박하는 장치가 된다.

남자친구 : 가족들한테 자기 소개하려고 해. 서두르는 것 같지만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니깐. 확실히 해 두고 싶어.

사와코상 : (미소지으며) 좋아.

남자친구 : 참, 우리 부모님이 언제 손주 보냐며 성화셔. 미안한데 임신 가능

19) 厚生労働省(2015), 「厚生労働白書」, pp.67-68.

진단서 같은 거 받아올 수 있을까?

사와코상 : (당황하며) 그게... 잘 모르겠지만 병원에 한 번 가볼게.

남자친구 : 부탁해.

사와코상 : 자기는?

남자친구 : 어? 나도 검사하라고?

사와코상 : 왜 나만 그런 검사 받아야 해?

남자친구 : 그거야 뭐...

사와코상 :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게? 자기가 문제라면 어쩔 건데?

사와코상은 할머니의 개호로 고민했지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요구에 대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 내가 선택을 잘못된 걸까? 그 사람 정말 좋아했는데... 괜찮아. 다 끝난 일이야”라며 수짱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 관계를 더는 지속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영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는 그렇다고 결혼구조의 보수성에 대해 전적으로 남성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는다. 결혼구조의 보수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제에는 한편으로 그 구조에 편입되고 싶은 여성의 욕망도 존재한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안온하게 생활을 영위하려는 여성의 심리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파트타임 직원 : 두 분 월급은 얼마 받아요? (정)직원이니까 30만엔은 되겠죠?

수짱 : 그러면 좋게. 세금 떼고 20만엔 조금 넘어.

수짱의 동료직원 : 대충 그래.

파트타임 직원 : 뽀뽀하네요.

수짱 :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파트타임 직원 : 역시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겠네요.

수짱 : 치카짱은 귀여우니까 곧 좋은 남자 생길 거야.

파트타임 직원 : 좋은 남자 있어요. 사법시험 중이라 자주는 못 만나지만 잘 되면 한 방에 인생역전이죠.

수짱 : 인생역전?

수짱의 동료직원 : 일단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결혼하지.

파트타임 직원 : 그거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말 같아요.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과 달리 과거 좀 더 윗세대 여성들의 경험은 거의 항상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틀 지워졌다. 심지어 그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여성들에게 “Striking out on one’s own”이란 말이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의 장년층 세대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성에게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결혼하는 것을 의미했다. 대부분의 남성들과는 대조적으로 대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외부 세계로의 진입을 애착관계(attachment)의 형성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남성들은 아직 독신이고 단지 미래의 관계들을 기대하고 있을 뿐일 때 자아에 관한 여성의 서사는 그럴 때조차 ‘우리’의 관점에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²⁰⁾ 마이짱은 표면적으로 독립적이며 소위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유부남과의 은밀한 연애에 점점 지쳐가고 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결혼 시장에 들어가 캐릭터 중 유일하게 결혼에 이르는 인물이다. 수짱과의 대화에서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했어.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말하는 마이짱 역시 자신이 처한 시점을 타파하기 위해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추구하는 매개체를 결혼으로 상징하고 있다.

여성의 심리 이면에는 남성이 여성인 자신보다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다는 기대감도 내재해 있다. 일본은 여성의 경우 정규·비정규의 임금 격차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정규·비정규라는 같은 고용 형태에서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 체계로 인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일한다는 것’의 개념은 자아실현의 장치가 아니라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성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공감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수짱 : 지금 아르바이트 뽑는 중인데 괜찮으세요?

남성 면접자 : 다음 달에 36살이 되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중략)

남성 면접자 : 경기불황으로 힘들 때고 거느린 식구도 있어서 빨리 직원이 됐으면 해서요. 점장님도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죠?

수짱 : 그런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죄송합니다. 서빙

20) 앤소니 기든스 지음, 배은경·황정미 옮김(1996),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pp.96-104.

뿐만 아니라 주방보조도 가능하신가요?

남성 면접자 : (기분 나빠하며) 이력서 보시면 알 텐데요. 난 사실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수짱 : 예?

남성 면접자 : 여자는 남자가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중략)

남성 면접자 : 뭐 잘났다고! 내 시간만 낭비했잖아.

수짱 : 이진 아니죠. 정장 차림이길래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각오로 왔나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 일을 가볍게 여기는 분을 채용할 순 없어요. 기대한 저야말로 시간 낭비였네요.

남성 면접자: 당신 시간 따위야! 남자도 없이 한가하게 살다가 점장 된 거 아니냐고!

수짱 : 그것도 틀렸어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결혼 후 맞벌이 부부의 가정 형태도 증가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발생하면서 정규직에서 비정규고용 형태로 이동하는 여성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시기는 1990년대로 그 역사가 길지 않다. 이전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은데는 여성이 사회진출을 하더라도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는 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는 남편의 급여만으로도 중산층의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는 크게 표면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계속된 일본사회의 경제불황과 가치관의 변화는 근대가족 담론이 지향한 남성의 공적영역과 여성의 가내영역 구조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대 이후 성립한 가정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가정의 주체로 규정지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가정의 주체는 여성이라는 인식은 여전하다. 그러므로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 혹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대다수 포기의 대상은 일이다. 영화 말미 마이짱은 변화를 위해 결혼했지만, 일을 포기한 순간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계속 자문하면 혼란스러워한다. 사람은 때로는 행복한 결혼의 패러독스처럼 결혼을 염원했음에도 결혼 생활 자체에는 불만 가득한 혹은 무언가 결핍되었다는 딜레마를 겪게 되는 것이다.

4. 마치며

여성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는 현재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무거운 사안에 대해 소시민들의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담담하게 그려낸다. 영화는 대중에게 주인공 수짱, 마이짱, 사와코상을 통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첫 번째는 개호에 관한 문제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비혼화와 만혼화 그에 따른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독신개호’라는 정점에까지 이르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노개호(老老介護)’, ‘인인개호(忍忍介護)’, ‘개호살인(介護殺人)’, ‘개호피로(介護疲労)’, ‘개호자살(介護自殺)’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가시화된 개호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안의 발생은 혼자서 가족의 개호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비혼자가 일상적인 생활마저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양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결혼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본의 사회적 구조이다. 고용의 불안정, 결혼·가족구조의 보수화 경향, 일과 가정 사이의 딜레마 등은 청년세대를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적 악순환은 가족의 붕괴를 비롯해 홀로 죽어가는 무연사(無緣死)까지 등장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일본은 법률적 혼인 외 출산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드리우고 있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출산과 양육 등 가족적 책임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반하는 보수적 구조를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은 2014년 기준 혼외자 출생률이 2.3%로 OECD 국가 중 한국(1.9%)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OECD 27개국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40.5%로²¹⁾ 한국,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치이다. 한부모 가구를 비롯해 미혼모와 미혼부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할 때이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해야만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

현재 일본의 가족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혈연보다 시간과 공간의 공유를 통해 연대를 형성하는 가족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가족규모의 약화

21) ‘한국 혼외자 출생률 OECD 최하위’ 서울경제 2018년 10월 1일 기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S5QSIOTCF> (검색일: 2018년 10월 1일).

는 이러한 구조를 촉발하는 기제가 된다. 영화는 개호의 문제, 결혼과 출산의 형태에 대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대중에게 전달해 가고 있다.

【참고문헌】

- 박승현(2017) 「가족개호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의 사회화’ - 일본 개호보협제도의 ‘자립과 자조’의 딜레마」,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131.
- 앤소니 기든스 지음, 배은경·황정미 옮김(1996)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pp.96-104.
-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팀 지음, 김범수 옮김(2012) 『무연사회』, 용오름, pp.136-141.
- 준 카르본·나오미 칸 지음, 김하현 옮김(2016), 『결혼시장 : 계급, 젠더, 불평등 그리고 결혼의 사회학』, 시대의 창, pp.166-169.
- 지은숙(2016) 「비혼(非婚)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가족관계와 젠더질서: 사회집단으로서 비혼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9-3』, 한국문화인류학회, pp.291-293.
- _____ (2017) 「비혼여성의 딸노릇과 비혼됨(singlehood)의 변화: 일본의 부모를 돌보는 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0-2』, 한국문화인류학회, pp.190.
- 工藤 啓·西田亮介(2014) 『無業社会: 働くことができない若者ものたちの未来』, 朝日新聞出版, pp.142-148.
- 上野千鶴子·水無田気流 著(2015) 『非婚ですが、それが何か!? 結婚リスク時代を生きる』, ビジネス社, pp.28-34.
- 厚生労働省(2013) 「労働経済の分析」, p.183.
- _____ (2015) 「人口動態統計」
- _____ (2015) 「厚生労働白書」, pp.67-68.
- 総務省(2015) 「国勢調査」, pp.8-23.
- 内閣府(2009) 「男女共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
<https://survey.gov-online.go.jp/h21/h21-danjo/2-2.html> (검색일: 2018.05.21.)
- 内閣府(2014) 「平成26年版 小児化社会対策白書」 p.17.
- ‘개호의 사회화’ 일본이 남긴 교훈, 시사 IN 2016년 11월 24일 기사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553> (검색일: 2018.07.15.)
- ‘한국 혼외자 출생률 OECD 최하위’ 서울경제 2018년 10월 1일 기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S5QSIOTCF> (검색일: 2018.10.1.)
- < 영상자료 >
御法川修(2013) 『すーちゃん まいちゃん さわ子さん』

논문 투고 일자 : 2018. 10. 14.
논문 심사 일자 : 2018. 11. 08.
게재 확정 일자 : 2018. 11. 09.

 < 要旨 >

 映画の通じてみた現代の日本女性の非婚化現象
 - 『結婚しなくていいですか』を中心に -

李允柱

本論文は、日本映画を通じて非婚で生きる女性の状況と社会的な要因の具体化を試みたものである。女性漫画を原作として制作された映画『結婚しなくていいですか』は、現在の日本社会が抱える重い事案に対し、庶民の生活と人間関係の中で淡々と描き、重いメッセージを投げかけている。現代日本の人口減少と単独世帯の増加は、結婚が負担だという認識と共に非婚時代が到来したことを端的に示している。そのうえ、法的な婚姻関係で行われた夫婦の出産だけを正常な出産と認める日本の保守的な家族観は、人口減少をさらに触発する契機となる。

日本社会で長い間、持続してきた雇用の不安定、家族構造の保守化の傾向、仕事と家庭との間のジレンマなどは“生涯未婚率”人口が増えるきっかけとなる。映画はこのような日本社会の構造的な問題に対してアプローチしている。家族介護の問題、さらに非婚者が介護を担うようになる仕組みについて言及し、またこれらの問題の原因について、女性の非婚化にともなう少子化に関して疑問を示す。映画はこのような構造的な悪循環を間接的に言及し、家族構造に対して新しいパラダイム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期が到来したことを大衆に伝えている。

 The phenomenon of non-maritalization of modern Japanese women seen through the
 movie
 - *Sue, Mai & Sawa: Righting the Girl Ship* -

Lee, Yoon-Ju

This study examines situations and social factors regarding non-married women from the analysis of a Japanese movie. Based on a woman's comic book, the movie *Sue, Mai & Sawa: Righting the Girl Ship* sends a strong message, drawing on a complex issue of present-day Japanese society, especially in the lives and relationships of the petit bourgeoisie.

The declining populations and the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in modern Japan clearly show that an age of non-marriage has arrived with the a perception that marriage is a burden and a risk. Moreover, Japan's conservative family values, which only acknowledges births stemming from legal marital relationships serves as impulses that triggers population decline.

Unstable employment, the conservative tendency of family structure, and the dilemma between work and home, which have long been a part of Japanese society, consist of the a mechanism that increases the populations including “the ratio of a lifetime without marriage.” The movie address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Japanese society. It mentions the problem of family care and highlights the manner in which non-married persons become responsible for elderly care. In addition, it calls into question the non-maritalization of women as a fundamental reason for the low birth rate, when considering the causes of this problems. The film conveys the message that a time has come when a new paradigm should be constructed concerning family structure, indirectly mentioning the current structural vicious circle.